

37 일차



매일 매일 꾸준히!

나관은 낙담이 아닌 분발의 위한 것이다.
인간의 정신은 투쟁을 통해 강해진다.

-윌리엄 E. 채닝

양to the치기 37일차

수요량이 증가하게 되어 남들과 차별화하고자 하는 심리가 충족되지 못해 그 상품을 사지 않겠다는 사람이 생겨나므로, 결과적으로 수요량의 증가폭이 감소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속물효과는 상품의 희소성이 약화될 때 나타나기 때문에, 판매자들은 높은 희소성을 유지하기 위해 가격 할인이나 적극적인 판촉 활동을 자제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소비자들이 다른 소비자와 독립적으로 소비를 결정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위의 두 경우와 같이 여러 사람의 수요가 상호의존적으로 영향을 주고받기도 한다.

1. 윗글에서 답을 찾을 수 있는 질문이 아닌 것은?

- ① 네트워크효과의 개념은 무엇인가?
- ② 유행효과가 유발하는 문제점은 무엇인가?
- ③ 유행효과는 어떤 소비자에게서 잘 나타나는가?
- ④ 속물효과에 따라 수요량은 어떻게 변화하는가?
- ⑤ 속물효과를 발생시키는 심리적 배경은 무엇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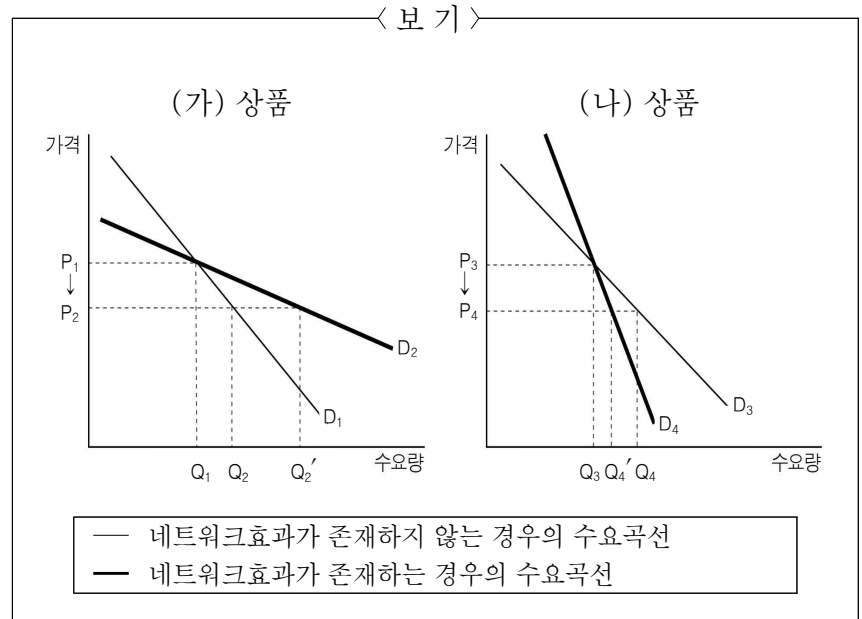
[1~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특정 상품에 대한 어떤 사람의 수요가 다른 사람들의 수요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을 네트워크효과(network effect)라고 말한다. 이러한 네트워크효과에는 유행효과와 속물효과가 있다.

어느 한 상품이 유행하게 되면 다른 사람들도 그 상품을 구입하려는 양상이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소비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들이 물건을 사는 것에 영향을 받아 그 물건을 구입하게 되는 것을 유행효과라고 한다. 예를 들어 유행효과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A 게임기의 가격이 20만 원일 때 5천 대, 15만 원일 때 6천 대로 수요량이 변한다고 한다. 그런데 유행효과가 존재하는 경우, 20만 원이었던 A 게임기의 가격이 15만 원으로 하락했을 때 게임기의 수요량이 6천 대가 아닌 8천 대로 늘어난다고 하자. 이는 가격이 떨어짐에 따라 게임기를 사려는 사람이 늘어나게 되고, 이들의 소비가 다른 사람들의 소비에 영향을 미쳐 새로운 소비가 창출된 결과, 수요량의 증가폭이 더욱 커지게 된 것이다. 이러한 유행효과는 유행에 민감한 소비자나 연예인을 동경하는 소비자들에게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이와는 달리, 어떤 상품을 소비할 때 소수만이 소유하기를 바라는 심리가 ㉠ 깔려 있는 경우, 그 상품을 구입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그 상품을 구입하지 않으려는 사람들도 생기게 된다. 이렇게 소비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들이 물건을 사는 것에 영향을 받아 그 물건을 구입하지 않게 되는 것을 속물효과라 한다. 예를 들어 속물효과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B 손목시계 가격이 3백만 원에서 1백만 원으로 하락했을 때 수요량이 1천 개 더 늘어난다고 한다. 그런데 속물효과가 존재하는 경우, B 손목시계의 가격이 1백만 원으로 하락했을 때 수요량의 증가폭이 5백 개에 그쳤다고 하자. 이는 가격 하락으로 인해

※ <보기>는 네트워크효과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와 존재하는 경우의 수요곡선을 나타낸 것이다. 18번과 19번의 두 물음에 답하시오.



2. 윗글과 관련지어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가) 상품의 가격이 P₁에서 P₂로 하락할 때 수요량이 Q₁에서 Q₂로 증가했다면, 유행효과가 존재하지 않는 것이겠군.
- ② (가) 상품의 가격이 P₁에서 P₂로 하락할 때 유행효과가 존재한다면,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Q₁에서 Q₂'만큼 수요량이 더 증가하겠군.
- ③ (나) 상품의 가격이 P₃에서 P₄로 하락할 때 속물효과가 존재한다면, 수요량은 Q₃에서 Q₄'로 변화하겠군.
- ④ (나) 상품의 가격이 P₃에서 P₄로 하락할 때 수요량이 Q₄가 아니라 Q₄'로 된다면, 타인과 차별화되고 싶은 심리가 작용한 것이겠군.
- ⑤ D₁과 D₂, D₃과 D₄를 각각 비교해 볼 때, 다른 사람들의 수요가 개인의 수요에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군.

양to the치기 37일차

3. 다음은 <보기>의 (가), (나) 상품에 대한 판매 전략이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상품	판매 전략
(가)	상품이 처음 출시되었을 때 그 상품에 대한 무료 체험 행사를 실시하여 사람들의 구매를 촉진한다. ①
	유명인들이 해당 상품을 방송에서 사용하는 모습을 자주 보여줌으로써 상품의 소비를 대중적으로 확대시킨다. ... ②
(나)	가격 경쟁보다는 해당 상품의 특성과 이미지를 차별화하는 전략을 수립한다. ③
	해당 상품의 수량을 조절하여 상품의 시장 판매량이 어느 수준 이상으로 늘어나지 않도록 관리한다. ④
	해당 상품과 어울리는 상품을 묶음으로 구성하여 제공함으로써 상품 구매 시 가격 부담을 줄인다. ⑤

4. 밑줄 친 단어 중, ㉠과 가장 가까운 뜻으로 쓰인 것은?

- ① 내 가방에 깔려 납작해진 빵을 발견했다.
- ② 할머니 집 마루에는 돛자리가 깔려 있었다.
- ③ 그 사람의 말에는 좋은 의도가 깔려 있었다.
- ④ 동네에는 그에 대한 소문이 꼭 깔려 있었다.
- ⑤ 여기저기에 깔려 있는 돈만 해도 상당한 액수였다.

[5~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주자학과 양명학은 사물의 궁극적인 이치인 ‘이(理)’를 탐구한다. 하지만 주자학의 ‘이’는 ‘만물의 본성이 곧 이치’라는 ‘성즉리(性卽理)’이며, 양명학의 ‘이’는 ‘내 마음이 곧 이치’라는 ‘심즉리(心卽理)’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차이가 나타나게 된 까닭은 무엇일까?

주자학의 ‘이’는 인간 주체와 분리되어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하늘의 이치’이다. 만물이 존재하는 근원적인 원리로서의 ‘이’는 하나이지만 각각의 사물에는 저마다의 ‘이’가 개별적으로 담겨 있다. 즉 만물에 있는 개별적인 ‘이’는 모두 다르지만, 근원적인 ‘이’는 하나인 것이다. 그런데 인간이 ‘하늘의 이치’인 ‘이’를 깨닫기 위해서는 각각의 사물에 들어 있는 ‘이’를 탐구한 다음, 지극한 경지에 이르러야 한다. 그러므로 주자학적 전통은 개별적인 ‘이’ 보다 하늘의 이치인 ‘이’에 대한 예의범도를 중시한다.

지방마다 절도사를 두어 행정과 군 통치권을 맡겼던 당나라는 왕실의 힘이 약화되면서 절도사들의 반란이 잦아졌고 그 결과 멸망했다. 이에 송나라에서는 군주에게 의리(義理)를 지켜야 한다는 생각이 자리 잡게 되었다. 이러한 배경에서 송나라 지식인들은 강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이’를 ‘현실에서의 의리’로 보았고, 주자학적 전통을 사회 질서를 바로잡는 통치 원리로 삼았다.

양명학을 창시한 ‘왕수인’은 ‘이’가 주체와 분리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본체라고 주장했다. 이러한 마음의 본체는 ‘양지(良知)’이며, 양지는 곧 하늘의 이치라고 하였다. 그의 철학은 인간 주체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하기에 사람은 하늘의 이치인 양지를 지니고 있다고 했다. 양지는 옳고 그름을 가려낼 수 있는 타고난 도덕적 자각 능력이다. 그래서 자신의 사사로운 생각에서 벗어나서 양지를 회복하는 과정을 강조했다. 자신의 양지를 보존하려는 마음, 자신에게 충실하고 진실하여 그 스스로 만족하기를 구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면, 마음과 이치가 합일된 경지이자 인간 자신이 타고난 도덕적 자각이 완성된 상태인 ‘치양지(致良知)’에 이르게 된다.

명나라 중기 이후 지배 세력이 농민의 세금 부담을 늘리자 농민 봉기가 확산되었다. 당시 농민의 구호는 ‘혼돈의 하늘을 열자’였다. 이는 주자학에서 말하는 정해진 하늘의 이치에 대한 부정이었으며, 주자학 대신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라는 시대적 요구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왕수인은 하늘이 정한 이치가 인간 주체와 분리되는 철학으로는 백성을 제대로 다스릴 수 없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 양명학은 개인과 자아라는 근대적 의식이 싹트고 전통 도덕으로 개인 의지를 억압하는 것에 대한 반성이 대두되면서 나타난 것이다.

결국 주자학과 양명학은 새로운 질서의 시대적인 요청에 의해 궁극적인 앎인 ‘이’에 관한 차이를 보이게 된 것이다.

5. 윗글을 통해 알 수 없는 것은?

- ① 주자학에서 설정하는 ‘이’와 ‘기’의 관계
- ② 명나라 중기 이후 농민 봉기가 확산된 이유
- ③ 주자학에서 제시하는 만물의 궁극적인 이치
- ④ 양명학에서 주장하는 ‘양지’가 회복된 상태
- ⑤ 송나라에서 ‘현실에서의 의리’를 강조하게 된 배경

6. <보기>에 대해 ‘왕수인’의 입장에서 제기할 수 있는 비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보 기 >

인간의 마음은 본래 백지(白紙)와 같은 것으로 어떠한 생득적 관념도 갖고 있지 않다. 인간은 사물에 대한 감각적 지각과 경험을 통해 지식과 사물의 이치를 획득한다.

- ① 치양지를 위해서는 경험이 아니라 각각의 사물에 들어 있는 이치를 탐구한 다음 만물의 근원적인 원리에 이르러야 하는 것이 아닌가?
- ② 지식을 획득하기 위해 감각적 지각을 우선시하는 것보다 먼저 주체와 분리된 ‘이’를 자각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 ③ 경험을 통한 지식의 획득보다 감각적 지각을 통해 사물의 이치를 획득하는 것을 우선시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 ④ 지식을 획득하기 위해 경험을 우선시하기보다 만물의 본성이 곧 이치라는 깨달음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닌가?
- ⑤ 인간의 마음은 본래부터 비어있는 것이 아니라 양지를 지니고 있는 것이 아닌가?

양토 the치기 37일차

7.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의 이유에 대해 추론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보 기 〉

양명학은 왕수인 이후에 개인의 수양을 강조하는 흐름으로 이어졌다. 그러나 주자학은 백성을 다스리기 위한 지배 이념인 관학(官學)으로서의 지위를 잃지 않고 이어졌다.

- ① 양명학은 타인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한 의리를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에
- ② 주자학이 군주에 대한 의리를 강조하여 사회 질서 유지에 도움이 되었기 때문에
- ③ 양명학은 양지를 회복하기 위해 모든 사물의 본성을 탐구해야 한다고 보았기 때문에
- ④ 주자학은 예의법도를 중시하여 도덕적 자각 능력의 수양 측면에서 양명학보다 우월했기 때문에
- ⑤ 근대적 의식에 부합하는 주자학의 이념이 양명학에 비해 궁극적인 이치를 탐구하는데 효율적이었기 때문에

양to the치기 37일차

것이였다.

한은 즐거웠다. 오래간만에 학생 때 친구 윤을 만나는 것도 반가웠다. 편지 한 장으로 구정을 생각하여 모든 것을 주선해 놓고 부르는 그의 우정이 감사하였다. ㉞ 오래간만에 촌길을 걸을 것, 험준한 산마루를 달려 볼 것, 신에게서 받은 자세대로 힘차게 가지를 뺐은 정정한 나무들을 쳐다볼 수 있을 것, 나는 핑을 떨구고, 닫는 노루와 멧도야지를 고꾸라트릴 것, 허연 눈 위에 온천처럼 용솟음쳐 흐를 피, 통나무 화롯불에 가죽 째 구워 뜯을 짐승의 다리, 생각만 하여도 통쾌한 야성적인 정열이 끓어올랐다. 아무리 문화에 길들였어도 사람의 마음 한구석에는 야성의 향수가 늘 대기하고 있는 듯하였다.

<중략>

[중략 부분의 줄거리] 사흘째 되는 날, 한은 늙은 포수가 커다란 멧도야지를 잡았다는 소식을 듣는다. 그런데 누군가가 멧도야지의 일부는 떼어가고 일부는 훼손하는 일이 발생한다. 늙은 포수는 범인을 잡기 위해 몰이꾼으로 부렸던 산골 사람들에게 뜨거운 물에 손을 담그게 하여 물에 기름기가 뜨는지 확인하려 한다.

좌중이 일시에 눈들이 서로 손으로 갔다. 모두 들썩은 가진 손이였다. 모두 울퉁불퉁 마디들이 험한 손이였다. 선한 일이고 악한 일이고 시키는 대로 할 뿐인, 죄 없는 손들이였다. 더구나 피로 살지 않고 힘으로 살기에, 도회지 사람들의 발보다도 더 험해진 그 순박한 손들에게 이런 야박스런 모욕이란 생후 처음 들일 것이였다.

한은 한편이긴 하나 늙은 포수가 오히려 알미웠다. ㉟ 이 자리에 한 손도 그 죄의 기름이 뜨는 손은 없기를 바랐다. 그러나 데운 물그릇이 나오기 전에 여러 사람의 시선을 혼자 쪼이는 손이 있었다. 곤색 양복 조끼의 손이였다. 깍지도 껴보고, 무릎 밑에 깔아도 보고, 허리춤을 굽적거리어도 보고, 나중엔 완전히 떨리어 곰방대를 내어 담배를 담았다.

눈치 빠른 늙은 포수는 얼른 끼고 앉았던 화로를 내밀었다. 담뱃불을 붙이느라고 길게 뺐 고개가 어딘지 어색할 뿐 아니라 불에 갖다 대는 대통이 덜덜 떨리었다. 늙은 포수는 버럭 소리를 질렀다.

“저 사람이 담뱃 붙여, 뭘 붙여?”

양복 조끼는 그만 입에서 놓쳐 버린 곰방대를 화로에서 집노라고 찢찢매었다. 늙은 포수는 움팡한 눈으로 그를 할퀴듯 쏘아 보았다. 그만 양복 조끼의 얼굴은 화로보다도 더 이글거렸다. 늙은 포수는 문을 열어 짓히며 안으로 소리를 쳤다.

“취인장? 물 데 내올 것두 없쇠다.”

그리고,

“한 사람만 남구 죄 없는 분들은 하나씩 일어나 나가슈.”

하였다. 끝내 못 일어서기는커녕, 고개도 못 들고 남아 있는 것이 이 양복 조끼였다. 늙은 포수는 어느새 철썩 그의 귀땀기를 갈졌다.

결국 구장이 나와, 자기 동리에서 생긴 불상사를 사과하였고, 이쪽의 처분을 기다리노라 하였다. 늙은 포수에게서는 이내 계산이 나왔다.

“피가 그 돼지한테서 다섯 사발만 나왔겠소? 소불하* 다섯 사발 치구두 오십 원허구, 쓸개가 어제 저 사람 제 입으루두 사십 원짜린 염려없을 게라구 그랬소. 사십 원허구, 뒷다릴 함 부루 썰어 났으니 가죽이 못쓰게 되잖았소? 가죽값 십 원만

[8~1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심란한 것뿐, 무슨 이렇다할 병이 있어서도 아니요 자기 체질에 저혈(猪血)*이 맞으리라는 무슨 근거를 가져서도 아니었다. 손이 바쁘던 때는, 어서 이 잡무에서 헤어나 조용히 쓰고 싶은 것이나 쓰고 읽고 싶은 것이나 읽으리라 염불처럼 외워 왔으나 이제 막상 손을 더 대려야 댈 수가 없게 되고 보니 ㉠ 그것들이 잡무만은 아니었던 듯 와락 그리워지는 그 편집실이요 그 교실들이였다.

사람이 안정한다는 것은 손발이 편안해지는 데 있는 것은 아니었다. 한은 한동안 문을 닫고 손발에 틈을 주어 보았다. 미단이 가까이 앉아 앙상한 앵두나뭇가지에 산새 내리는 것도 내다 보았고 가랑잎 구르는 응달진 마당에 싸락눈 뿌리는 소리도 즐겨 보려 하였다. 그러나 하나도 마음에 안정을 가져오지 않을 뿐 아니라 점점 신경을 날카롭게 메마르게 해주는 것만 같았다. 이번 사냥은 이런 신경을 좀 녹여 보려는 한갓 산책에 불과한

양to the치기 37일차

허구, 백 원만 물어 노슈. 오늘 이 지경 됐으니 사냥할 맛 있게 됐소? 오늘 하루두 우린 손해요.”

“참, 손해가 많으시군요! 허나 이 사람이야 단돈 십 원을 해 낼 주체가 어디 되나요. 요 너며 이 사람 사춘이 한 분 계시니 내 넘어가 의논허구 과히 억울치 않두록 마련하오리다. 아무튼 주재소에만 알리지 말구 내려가 기다려 주시지요.”

㉔ 늙은 포수는 주재소 말이 저쪽에서 나온 김이라, 오후 세 시까지 기다려서 소식이 없을 때는 주재소에 고소를 한다고 하였

고,
“저따위 덜된 자석은 몇 해 감악소 밥을 맥여야 사람 구실을 할 거요.”

하고 올려메었다.

아무튼 도야지를 각을 떠 석 점이나 지워 가지고 거리로 내려왔다. 식전에 십 리 길을 걸은 속이라 모두 시장했으나 한 사람도 고기 맛이 있을 리 없었다. 뒷일은 늙은 포수에게 맡기고 한과 윤은 젊은 포수를 데리고 꿩 사냥을 나갔다가 어스름해서야 돌아와 보니, 일은 더욱 상서롭지 못하게 번져 있었다.

양복 조끼의 사촌형이 돈 삼십 원을 주며, 이 돈만으로는 포수가 들을 리가 없으니 또 주재소에서 소문으로도 벌써 모르고 있을 리 없을 것이니, 주재소로 가서 때리는 대로 맞고, 그저 죽을 때라 잘못했노라 하고, 이 돈 삼십 원밖엔 해놓을 수가 없으니, 이 돈으로 무사하게 처분해 달라고 빌라고 일러 보냈는데 돈 삼십 원을 넣은 양복 조끼는 주재소로도 포수에게도 나타나지 않았다. 밤이 이슬해서는 그가 월정리역에서 어디로 가는 것인지 차표 사는 것을 보았다는 소문까지 퍼지었다.

사냥은 이렇게 마치고 말았다.

차가 창동을 지나니 자리가 수선해지는 바람에 한은 깜박 들었던 잠을 깨었다. ㉕ 집이 있는 서울이 가까워 온다. 그러나 한은 조금도 반갑지 않았다. 그는 생각하였다. 단돈 삼십 원으로도 달아날 수 있는 그 양복 조끼에게는 세상이 얼마나 넓으랴! 싶었다.

- 이태준, 「사냥」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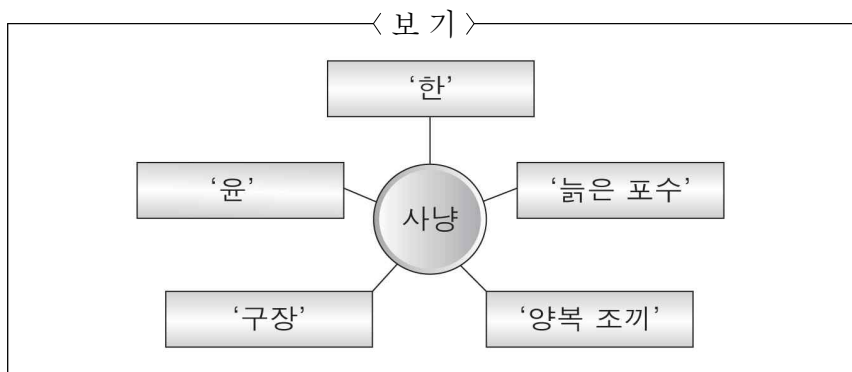
* 저혈: 돼지의 피

* 소불하: 적게 잡아도

8. 윗글의 서술상의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서술자를 교체하여 새로운 사건을 도입하고 있다.
- ② 서로 다른 장면을 연결시켜 결말을 암시하고 있다.
- ③ 과거 사건을 삽입하여 인물들의 관계를 드러내고 있다.
- ④ 행동 묘사를 통해 인물의 심리를 효과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 ⑤ 서술자가 자기 경험을 직접 서술하여 사건의 전모를 드러내고 있다.

9. <보기>는 ‘사냥’과 관련된 인물들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한’은 어떤 이도 사냥에서 생긴 불상사의 범인으로 밝혀지지 않기를 바란다.
- ② ‘늙은 포수’는 사냥에서 얻은 포획물이 ‘양복 조끼’에게 훼손당하여 손해를 입는다.
- ③ ‘윤’은 사냥에서 생긴 불상사의 범인이 밝혀진 것에 대하여 안도감을 느끼고 있다.
- ④ ‘한’에게 있어서의 사냥은 ‘늙은 포수’와 달리 일상으로부터 벗어나는 경험에 대한 갈망이다.
- ⑤ ‘구장’은 사냥에서 생긴 불상사를 해결하기 위해 ‘늙은 포수’와 ‘양복 조끼’ 사이에서 중재하는 역할을 한다.

10. <보기>를 참고하여 ㉑~㉕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이 작품은 일상적인 공간에서 비일상적인 공간으로, 다시 일상적인 공간으로 회귀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 주인공은 일상적인 삶의 공간인 도시에서 벗어나 비일상적 공간인 야성의 세계를 찾아간다. 그러나 그곳 역시 매물찬 계산의 논리와 위압에 의해 지배되는 세계라는 것을 확인하며 다시 도시로 돌아온다. 어떤 공간에서든 질곡의 현실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인식은 식민지 지식인으로서의 고뇌와 갈등을 보여주는 것이다.

- ① ㉑ : ‘편집실’과 ‘교실’은, 식민지 지식인이 찾아가고 싶어 하는 비일상적 공간이군.
- ② ㉒ : ‘촌길’과 ‘힘준한 산마루’는, 야성의 세계에 대한 인물의 지향을 보여주는 공간이군.
- ③ ㉓ : ‘이 자리’는, 야박하고 계산적인 논리에 의해 삶이 속박되지 않기를 바라고 있는 공간이군.
- ④ ㉔ : ‘주재소’는 위압의 수단으로 사용되어, 비일상적인 세계도 위압에 의해 지배됨을 보여주는 공간이군.
- ⑤ ㉕ : ‘서울’은, 질곡의 현실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식민지 지식인으로서의 고뇌와 갈등을 보여주는 공간이군.

[11~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하루해
너의 손목 싸쥐면
고드름은 운하(運河) 못 미쳐
녹아 버리고.

풀밭
부러진 허리 꺾건지다 보면
밀둥 긴 폭포(瀑布)처럼
역사(歷史)는 철철 흘러가 버린다.

피다순 쪽지 잡고
너의 눈동자 령(嶺)넘으면
정전지구(停戰地區)*는
바심*하기 좋은 이슬젖은 안마당.

고동치는 젓가슴 뿌리세우고
치솟은 삼림(森林) 거니노라면
초연(硝煙)* 걷힌 밭두덕 가
새벽 열려라.

- 신동엽, 「새로 열리는 땅」 -

양to the치기 37일차

- * 정전지구: 일시적으로 전투가 중지된 지역
- * 바십: 곡식의 이삭을 떨어서 낱알을 거두는 일
- * 초연: 화약의 연기

(나)

아마 무너뜨릴 수 없는 고요가
공터를 지배하는 왕일 것이다
빈 듯하면서도 공터는
늘 무엇인가로 가득 차 있다
공터에 지는 바람, 봄비는 바람,
때때로 바람은
숨털에 싸인 풀씨들을 던져
공터에 꽃을 피운다
그들의 늙고 시름에
공터는 말이 없다
있는 흙을 베풀어주고
그들이 지나가는 것을 무심히 바라볼 뿐.
밝은 날
공터를 지나가는 도마뱀
스쳐가는 새가 발자국을 남긴다 해도
그렇게 오래가지 않을 것이다
하늘의 빗방울에 자리를 바꾸는 모래들,
공터는 흔적을 지우고 있다
아마 흔적을 남기지 않는 고요가
㉠ 공터를 지배하는 왕일 것이다

-최승호, 「공터」-

11. (가)와 (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대상을 의인화하여 대상의 의미를 부각하고 있다.
- ② 어조의 변화를 통해 시적 긴장감을 고조하고 있다.
- ③ 과거와 현재를 대비하여 시적 정서를 심화하고 있다.
- ④ 반어적 표현을 사용하여 부정적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 ⑤ 수미상응의 구조를 통해 화자의 정서를 고조시키고 있다.

12. <보기>를 참고하여 (가)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기 >

신동엽의 현실 인식은 민족이 '처해 있는 현실'에 머물지 않고 '있어야 할 현실'을 지향한다. 이 시에서도 분단이라는 부정적 상황에 머물지 않고, 공동체의 동질성이 회복된 현실에까지 나아가고 있다. 결국 이 시에서 '있어야 할 현실'은 민족 공동체의 염원과 기대가 담긴 민족 화합의 장이다.

- ① '고드름'은 공동체의 동질성이 회복된 민족 화합의 현실로 볼 수 있군.
- ② '부러진 허리'는 민족 공동체의 분단이라는 부정적 상황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군.
- ③ '역사는 철철 흘러가 버린다.'는 민족이 처해 있는 현실이 현재에 머물지 않고 미래로 나아가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고 볼 수 있군.
- ④ '정전지구'는 민족이 처해 있는 현실을 나타내는 공간으로 볼 수 있군.
- ⑤ '새벽 열려라.'는 민족 공동체의 염원을 드러낸다고 볼 수 있군.

13.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화자의 방향을 유발하는 대상이다.
- ② 화자가 통념과 달리 새롭게 바라보는 대상이다.
- ③ 화자의 세계에 대한 대결 의지를 드러내는 대상이다.
- ④ 화자가 낯선 세계를 동경하게 하는 계기가 되는 대상이다.
- ⑤ 화자의 삶이 투영되어 회상의 매개체 역할을 하는 대상이다.

[14~1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앞부분 줄거리] '현'은 현실에 안주하려는 삶을 살아가는 할아버지와 현실을 개혁하려는 삶을 살았던 아버지 사이에서 방황하는 지식인이다. '현'은 일제 강점기 학병으로 끌려갔다가 탈주하여 고향으로 돌아와 평범한 생활을 추구한다. 그러나 '현'은 월북했다가 6·25때 돌아온 친구 '연호'가 주도하는 인민재판에 분노하여 총을 난사하고, 자신도 총상을 입은 채 동굴로 피해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된다.

S#53. 읍내 플랫폼

이른 새벽, 안개 속에 기차를 기다리는 사람들. 길 떠날 차림의 현과 고영감, 어머니가 온다. 품속에서 여남은 장 ㉠ 지전 다발을 꺼내더니.

고영감 아랫말 과수원 판 돈이여. 헛되이 쓰지 말고 꼭 대학에 붙어서 판검사가 되어 혀.

공손히 받는 현.

고영감 네가 우리 집안에 기둥이 되어 혀. 부디 성공을 해라.

이윽고 먼 기적 소리. 기차가 들어온다.

현 그럼, 할아버님.

고영감 오냐. 일본에 가 거처를 정하결랑 곧 연락을 혀. 돈도 필요하면 더 보낼 테니께.

현 (어머니를 돌아보다.)

현모 내 걱정 말고 아무쪼록 객지에서 몸 성히 다녀와라.

눈물고인 시선 꼭 손목을 잡아준다. 기차에 오르는 현. 저만치 역 구내에 영순이가 서 있다. 가만히 손 들어주는 현. 영순 돌아서 온다. 이윽고 ㉡ 발차 신호. 천천히 기차가 움직이기 시작한다. 점차 멀어지는 그들. 손을 흔드는 현.

S#54. 기차 안

차창에 앉은 현. 멀어져가는 고향 풍경. 자꾸 뒤돌아본다. 기차가 터널로 들어간다. 어두워지는 주위. 웬일일까? 기차만 가고 현만 남아 있다. 이상하다. 동굴 안에 달랑 남아 꿈결인 양 둘러보는 현.

S#55. 동굴 안(밤)

동굴 속에 앉아 있는 현. 몽롱한 의식 속에 괴로워하다가 퍼뜩 눈을 뜬다. 뚝, ㉢ 떨어지는 물방울. 아, 역시 동굴 속이라 정신을 가다듬어 내다보는 현. 밖에는 추적추적 비가 내리고 있다. 점점 기력이 쇠진하고 의식이 몽롱해지는 현. 상처 찌시는 다리에 가만히 손을 댔다가 눈앞에 가까이 본다. ㉣ 검붉은 핏자국. 가쁜 숨결. 이윽고 헛소리 하는 현.

"..... 죽는 걸까? 여기서 이대로 죽는 건가? 맥박이 뭘 적마다 피가 흐른다. 몇 시간이나 더 지탱할 수 있을까...... 아니 그놈이 올 텐데...... 그놈은 꼭 오고야 말 것이다."

메마른 입술. 전신을 스치는 소란. 현, 총신을 잡고 고통에 쩡

양to the치기 37일차

그리며 가만히 일어난다. 지레 문 어금니 사이로 신음이 새어나 온다. 현, 다리를 끌고 나가 동굴 입구에 떨어지는 빗물을 받아 마신다. 얼굴을 적시는 빗줄기. 어두운 계곡에 뽀얀 물보라. 저 멀리 마을 쪽에 ㉠ **예광탄** 하나가 밤하늘을긋는다. 흠칫 놀라는 현. 총신을 거머쥐고 겨냥하며 슬금슬금 안으로 든다. 마치 게 한 마리 나오려다 도로 기어들어가는 것 같다. 현, 눈을 지그시 감고 고통을 참는다.

현 **놈은 온다...... 꼭 온다...... 나를 죽이러 온다......**

문득 먼 포성. 흠칫 귀를 기울이는 현. 계속되는 포성.

현 **천둥소리? 아니 저건 포 소리 같은데...... 포 소리...... 포 소리가 분명해.**

현의 목소리가 우릉우릉 굴속을 메아리쳐 굴러가며 거기 다시 환청으로 누구의 목소리가 메아리 되어 울리며,

“(오노오노 소노 도꼬로에 에시무) 모두들 각자의 자기 설 자리에 서게 한다는 것은 만고불변의 진리다. 개인을 절대적 단위로 하고 무원칙적인 평등과 무제한한 자유를 목적으로 한 서구의 사회 질서는 극도의 혼란을 조장케 되었고 그 문명은 바야흐로 몰락의 과정에 이르게 된 것이며......”

S#56. 일본 제대 강의실

칠판에 커다랗게 팔굉일우(八紘一宇) 휘갈겨 써 놓고 변사조의 강의를 계속하는 동양윤리학 교수 다까라. 멍한 얼굴로 강의를 듣는 현.

다까라 **이때야말로 빛은 동방으로부터 첫손 미족이 쫓기할 때는 당도한 것이다. (오노오노)...... 그것은 존재의 군화원리를 투시한 것이며 겸허한 인간 정신의 가치는(고에 다까라니 우따우모노)...... 소리 드높여 노래하는 것이라. 역사적 대사명...... 팔굉일우 얼마나 장엄한 선언이냐?**

장엄한 선언? 비웃듯 되물어보는 현의 표정.

다까라 **대동아공영권 건설의 정신이 바로 이것이다. 미영의 굴레에 억압된 황색민족을 해방하고 새로운 질서를 확립하여 일본은 아시아의 맹주가 되어야 한다. 이 얼마나 비장하고 장엄한 사명이냐?**

S#57. 동굴 안(밤)

눈감은 채 괴로워하는 현.

현 **그래서?**

S#58. 강의실

다까라 (쪼르르 달려가 흑판에 대일본제국이라고 휘갈겨 쓰고) 따라서 우리 국민 각자는 이 거룩한 대의에 한 목숨 초개 같이 버려 천황 폐하의 황은에 보답해야 하는 것이다. 보라. 들에 노는 축생일지라도 그들 자신을 벌함으로써 그 가치를 발휘하고 있지 않느냐? 그들은 그들의 한 가닥 뼈마져 인간을 위해 달게 바치고 있는 것이다.

S#59. 동굴 안(밤)

“(따지듯) 달게?”

- 선우휘 원작. 이은성 외 각색, 「불꽃」 -

14.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인물의 내면 의식의 흐름을 중심으로 극이 진행되고 있다.
- ② 다양한 효과음이 활용되어 작품의 긴장감이 완화되고 있다.
- ③ 시간의 역전된 흐름에 따라 인물 간의 갈등이 해소되고 있다.
- ④ 새로운 인물의 등장을 통해 인물 간의 관계가 개선되고 있다.
- ⑤ 공간의 변화에 의해 현실의 모순에 대한 해결책이 제시되고 있다.

15.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에 나타난 장면 전환을 이해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 보 기 > —

영화의 장면은 연속된 시간이나 공간으로 전환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서로 다른 공간이나 연속성을 벗어난 시간으로 장면이 전환되기도 한다. 서로 다른 공간이나 시간을 연결하는 경우, 두 장면의 연속성을 암시하는 연결고리가 필요하다. 이는 주로 선·후행 장면에서 나타나는 상황의 유사성, 선·후행 장면 내의 소재나 형상의 유사성, 선·후행 장면에 포함된 소리의 유사성 등으로 표현된다.

- ① S#54에서 터널로 들어가는 것과 S#55의 동굴 안은 어둠이라는 상황의 유사성을 이용한 장면 전환이 일어나는 것이군.
- ② S#55에서 굴속에서의 현의 목소리와 일본인 교수의 목소리는 메아리라는 소리의 유사성을 활용하여 S#56으로의 전환을 유도하고 있군.
- ③ S#56에서 S#57로의 장면 전환은 교수의 강의에 대해 현이 반문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강의에 대한 반응’이라는 상황의 유사성으로 연결시키고 있군.
- ④ S#57에서 S#58로의 장면 전환은 괴로워하는 현의 신음 소리와 교수의 강의 소리라는 소리의 유사성을 활용하여 이루어지고 있군.
- ⑤ S#58에서 S#59로의 장면 전환은 교수의 말의 일부를 다시 사용하여 ‘달게’라고 반문하는 ‘현’의 말의 소리의 유사성을 활용하여 이루어지고 있군.

16. ㉠~㉤의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은 ‘현’에 대한 ‘고영감’의 기대를 보여주고 있다.
- ② ㉡은 이별의 시간이 되었음을 청각적으로 일깨워주고 있다.
- ③ ㉢은 ‘현’이 자신이 있는 장소가 어디인지를 확인하게 하고 있다.
- ④ ㉣은 ‘현’의 부상이 심각한 상태임을 시각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 ⑤ ㉤은 자신을 구해줄 사람에 대한 ‘현’의 기대를 상징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해석

- ②②⑤③①
- ⑤②④③①
- ①①②①④
- ⑤

[1~5] <출전> 이준구, 「미시경제학」

1. [출제의도] 세부 내용 파악하기

유행효과가 잘 나타나는 소비자의 특성에 대해서는 2문단에서 언급하고 있지만, 유행효과가 어떤 문제점을 유발하는지는 이 글에서 찾을 수 없다.

① 1문단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③ 2문단의 마지막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④ 3문단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⑤ 3문단의 앞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다.

2. [출제의도] 핵심 내용 이해하기

가격이 P_1 에서 P_2 로 하락할 때, 유행효과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수요량이 Q_1 에서 Q_2 로 증가하고, 유행효과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수요량이 Q_1 에서 Q_2 로 증가한다. 따라서 유행효과가 존재하는 경우,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비해 Q_2 에서 Q_2' 만큼 수요량이 더 증가하게 된다.

③ (나) 상품의 가격이 P_3 에서 P_4 로 하락할 때, 속물효과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수요량은 Q_3 에서 Q_4 로 변화하게 된다. 그런데 속물효과가 존재하는 경우 다른 사람의 소비에 영향을 받아 (나) 상품을 구입하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생겨나므로 결과적으로 수요량은 Q_3 에서 Q_4' 로 변화한다. ④ (나) 상품의 가격이 P_3 에서 P_4 로 하락할 때 수요량의 증가폭이 감소한 것은 3문단의 내용과 관련지어 볼 때 타인과 차별화되고 싶은 소비자의 심리가 작용한 것이라 할 수 있다. ⑤ D_2 와 D_4 는 각각 유행효과와 속물효과가 존재하는 경우의 수요곡선이므로, 다른 사람들의 수요가 개인의 수요에 영향을 미쳤음을 알게 해 준다.

3. [출제의도] 글의 내용 적용하기

(가)는 유행효과, (나)는 속물효과가 나타나는 상품이다. 유행효과는 다른 사람의 소비에 영향을 받아 수요량이 추가적으로 증가하는 것이므로 소비를 증가시키기 위한 판매 전략이 필요하다. 속물효과는 남과 차별화하고자 하는 심리가 소비의 배경이 되므로 상품의 희소성을 높게 유지시키기 위한 전략이 필요하다. 묶음으로 구성되어 상품 구매 시 가격 부담을 줄이는 것은 희소성을 높게 유지시키는 전략과 관련이 없다.

① 상품이 출시되었을 때 무료로 체험할 수 있는 행사를 실시하여 구매가 촉진되면 이에 영향을 받은 추가적인 수요가 발생하게 된다. ② 유명인들의 모습을 본 소비자들이 이에 영향을 받아 구매를 하게 되면, 이는 또 다시 다른 사람에 영향을 주어 수요를 증가시키게 된다. ③ 해당 상품의 특성과 이미지를 유지하게 되면, 그 상품에 대해 다른 사람과 차별화하려는 심리를 지닌 사람들의 소비를 유도할 수 있다. ④ 시장 판매량이 늘어나지 않게 관리하면 희소성을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으므로 차별화를 추구하는 소비자들의 소비를 유도할 수 있다.

4. [출제의도] 단어의 문맥적 의미 파악하기

①의 '심리가 깔려 있는 경우'에 사용된 '깔려'와 '좋은 의도가 깔려 있었다'에 사용된 '깔려'는 '사상이나 감정, 생각 따위가 겹으로 드러나지 않고 묻혀 있다'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① '무엇을 밑에 두고 누르다'는 뜻으로 사용되고 있다. ② '바닥에 퍼 놓다'는 뜻으로 사용되고 있다. ④ '널리 퍼져 있다. 또는 많이 퍼져 있다'는 뜻으로 사용되고 있다. ⑤ '돈이나 물건 따위를 여기저기 빌려 주거나 팔려고 내놓다'는 뜻으로 사용되고 있다.

[5~7] <출전> 김교빈 외, 「함께 읽는 동양철학」

5. [출제의도] 세부 정보 파악하기

이 글은 주자학과 양명학이 핵심적인 명제에서 차이를 보이는 까닭을 시대적인 배경을 중심으로 설명하고 있는 글이다. 즉 두 사상의 '이'에 대한 관점의 차이와 이러한 차이가 나타나게 된 역사적인 배경을 중심으로 설명하고 있다. 그런데 주자학에서 설정하는 '이'와 '기'의 관계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다.

② 5문단의 '지배 세력이 농민의 세금 부담을 늘리자 농민 봉기가 확산되었다'는 진술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③ 1문단의 만물의 궁극적인 이치가 곧 '이'라는 진술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④ 4문단의 왕수인은 '양지를 회복하는 과정'을 중시했고 마음과 이치가 합일된 경지이자 인간 자신이 타고난 도덕적 자각이 완성된 상태를 치양지라고 한 진술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⑤ 3문단의 당나라는 지방 세력에 의해 멸망했고, 이에 송나라에서는 군주에게 의리를 지켜야 한다는 생각이 자리 잡았고, '이'를 '현실에서의 의리'로 보았다는 내용에서 송나라에서 '현실에서의 의리'를 강조하게 된 배경을 확인할 수 있다.

6. [출제의도] 사례에 대한 비판의 적절성 판단하기

<보기>는 인간의 마음은 본래 백지(白紙)와 같은 것이므로 감각적 지각과 경험을 통해 지식과 사물의 이치를 획득해야 한다는 경험론적 관점을 취하고 있다. 이것은 인간은 본래부터 하늘의 이치인 '양지'를 가지고 있다는 왕수인의 주장에 배치된다. 그러므로 '인간의 마음은 본래부터 비어있는 것이 아니라 양지를 지니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것은 왕수인의 관점에서 <보기>의 글을 비판하는 진술로 적절하다.

7. [출제의도] 글의 내용을 바탕으로 추론하기

<보기>에는 양명학과 달리 주자학이 관학(官學)으로서의 지위를 잃지 않고 백성을 다스리는 지배 이념으로 작용하게 되었다고 밝히고 있다. 그 이유는 3문단의 신하들은 군주에게 의리(義理)를 지켜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고, '이'를 '현실에서의 의리'로 본 주자학이 사회 질서를 바로잡는 대안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는 진술을 통해 추론할 수 있다.

[8~10] <출전> 이태준, 「사냥」

8. [출제의도] 서술상의 특징 파악하기

'양복 조끼'는 자신이 도야지를 훼손한 사실이 밝혀질까 불안하여 손을 '깎지도 껴보고, 무릎 밑에 깔아도' 본다. 그리고 '허리춤을 굽적거리려도 보'고, '곰방대를 내어 담배를 담'는 등의 행동을 보이기도 한다. 이는 자신의 불안한 심리를 행동을 통해 드러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행동 묘사를 통해 인물의 심리를 효과적으로 보여준다는 진술은 적절하다.

① 이 작품은 처음부터 끝까지 3인칭 전지적 서술자에 의해 사건이 전개되고 있다. 그러므로 서술자를 교체했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② 이 작품에서 결말 암시를 위해 서로 다른 장면을 연결하는 부분은 찾을 수 없다. ③ 이 작품에서 과거 사건은 등장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과거 사건을 삽입했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⑤ 이 작품은 작품 속에 등장하지 않는 3인칭의 전지적 서술자에 의해 서술되고 있다. 그런데 서술자가 자기 경험을 직접 서술하는 것은 서술자가 작품 안에 있는 1인칭 시점 소설의 특징이다. 그러므로 이 작품이 서술자가 자기 경험을 직접 서술하고 있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9. [출제의도] 중심 사건과 관련된 인물 간의 관계 파악하기

'늑은 포수'에 의해 '양복 조끼'가 사냥에서 일어난 불상사의 범인으로 밝혀진 후, '식전에 십 리 길을 걸은 속이라 모두 시장했으나 한 사람도 고기 맛이 있을 리 없었다.'라는 내용이 서술되어 있다. 이를 통해 불상사의 범인이 밝혀진 후, 범인이 밝혀지던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심리는 안도감과는 거리가 먼, 무언가 개운치 않았을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윤'도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의 한 사람이므로, '윤'이 사냥에서 생긴 불상사의 범인이 밝혀진 것에 대해 안도감을 느끼고 있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① '한'은 '늑은 포수'가 도야지를 훼손한 범인이 누구인지 확인하려 하자, '이 자리에 한 손도 그 죄의 기쁨이 뜨는 손은 없기를 바'라고 있다. 이를 통해 '한'이 어떤 이도 사냥으로 인한 불상사의 범인으로 밝혀지지 않기를 바라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② '늑은 포수'가 사냥으로 잡은 도야지를 훼손한 것이 '양복 조끼'였음이 그의 죄에 의해 밝혀지고, '구장'은 '늑은 포수'가 '양복 조끼'로 인해 손해를 입었음을 인정한다. 그러므로 '늑은 포수'가 사냥에서 얻은 포획물이 '양복 조끼'에게 훼손당하여 손해를 입는다는 진술은 적절하다. ④ '한'은 사냥을 통해 일상에서 벗어나 '야성의 향수'를 느낄 수 있기를 갈망한다. 이와 달리 '늑은 포수'에게 사냥은 돈을 벌 수 있는 일종의 직업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한'에게 있어서의 사냥은 '늑은 포수'와 달리 일상으로부터 벗어나는 경험에 대한 갈망이라는 진술은 적절하다. ⑤ '구장'은 '양복 조끼'의 행위에 대해 '늑은 포수'에게 사과하며 '요 너머 이 사람 사촌이 한 분 계시니 내 넘어가 의논허구 과히 억울치 않두록 마련하오리다. 아무튼 주재소에만 알리지 말구 내려가 기다려 주시기요.'라고 말하며 중재 역할을 하고 있다.

10. [출제의도] 공간을 중심으로 한 감상의 적절성 파악하기

'편집실'과 '교실'은 '한'의 '손이 바쁘던 때'에 그가 있었던 공간으로, '한'의 일상적인 삶이 이루어지는 도시에 있는 공간이다. 그러므로 '편집실'과 '교실'을 비밀상적 공간이라고 한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② '한'은 일상적 공간에서 벗어나 비밀상적인 야성

의 세계를 갈망한다. '촌길'과 '힘준한 산마루'는 이러한 비밀상적 야성의 세계에 있는 공간이므로, '촌길'과 '힘준한 산마루'가 야성의 세계에 대한 인물의 지향을 보여주는 공간이라는 진술은 적절하다. ③ '한'은 '도회지 사람들의 발보다도 더 험해진 그 순박한 손들에게 이런 야박스런 모욕이란 생후 처음들일 것'이라면서, '늪은 포수'가 야박하고 계산적인 태도로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의 죄를 추궁할 때, '한'은 그 죄의 기쁨이 뜨는 손은 없기를 바'란다. 이를 통해 '이 자리'는 야박하고 계산적인 논리에 의해 삶이 속박되지 않기를 바라고 있는 공간이라는 진술은 적절하다. ④ '늪은 포수'는 자신에게 경제적인 손해를 입힌 '양복 조끼'에 대해 보상을 하지 않을 경우 '주재소'에 보내야 한다고 말한다. 이 때 '주재소'는 '양복 조끼'를 압박하기 위해 사용한 위압의 수단이다. 그러므로 '주재소'가 위압의 수단으로 사용되어, 비밀상적인 세계 또한 위압에 의해 지배됨을 보여주는 공간이라는 진술은 적절하다. ⑤ <보기>를 통해 '한'은 어떤 공간에서든 질곡의 현실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인식을 하게 됨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한'이 '집이 있는 서울이 가까워' 오는 것을 반가워하지 않으며, '단돈 삼십 원으로도 달아날 수 있는 그 양복 조끼'에 대해 생각한다는 것은, '한'에게 있어 '서울'은 식민지의 지식인이 질곡의 현실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는 공간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서울'이 질곡의 현실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식민지 지식인으로서의 고뇌와 갈등을 보여주는 공간이라는 진술은 적절하다.

[11~13] <출전> 신동엽, 「새로 열리는 땅」, 최승호, 「공터」

11. [출제의도] 작품들 간의 공통점 파악하기

(가)는 분단 상황의 조국을 '너의 손목', '부러진 허리', '너의 눈동자'의 표현으로 의인화하여 회복의 공간이라는 국토의 의미를 부각하고 있으며, (나)는 공터를 '말이 없다', '베풀어주고', '무심히 바라볼 뿐'의 표현으로 의인화하여 묵묵히 베풀어주는 공터의 의미를 부각하고 있다.

12. [출제의도] 자료를 활용하여 시 감상하기

1연의 '고드름'은 <보기>에서 밝힌 민족이 처해 있는 분단이라는 부정적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를 공동체의 동질성이 회복된 민족 화합의 현실로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13. [출제의도] 공간의 의미 이해하기

이 시에서 화자는 통념상 빈 공간으로 인식되는 '공터'에 '고요'만이 있는 줄 알았지만 '공터'를 주목하면서 '바람, 풀씨, 꽃' 등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으로 새롭게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공터'가 화자가 통념과 달리 새롭게 바라보는 대상이라는 진술은 적절하다.

[14~16] <출전> 선우휘 원작, 이은성 외 각색, 「불꽃」

14. [출제의도] 극의 진행 방식 이해하기

이 글은 현재 동굴에 피신해 있는 주인공 '현'의 내면 의식을 따라 현재와 과거를 넘나들면서 극이 진행되고 있다. 즉 현재의 시각에서 과거의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변화하는 심리를 중심으로 극이 진행되고 있다.

② 등장하는 효과음에는 기차의 발차신호, 포성 등이 있는데, 이들 효과음은 작품의 긴장감을 높이는 기능으로 사용되었으며, 긴장감을 완화하는 효과음은 사용되지 않았으므로 적절하지 않은 진술이다. ③ 찾을 수 있는 인물 간의 갈등은 '현'과 '놈'의 갈등, '현'과 '다까라'의 갈등인데, 제시된 부분에서는 이들 인물 간의 갈등이 해소되지 않고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은 진술이다. ④ 이 글에는 관계가 개선되고 있는 인물들은 나타나지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은 진술이다. ⑤ 이 글에는 '동굴'과 '강의실' 등으로 공간의 변화가 나타나지만, 이에 따라 인물의 내면적 갈등이 드러날 뿐 현실의 모순에 대한 해결책이 제시되고 있지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은 진술이다.

15. [출제의도] 장면 전환 방식 이해하기

<보기>에 따르면 소리의 유사성을 이용한 장면 전환에서는 선-후행 장면 내에 유사한 소리가 장면을 전환하는 연결고리가 된다. 그런데 S#57에서는 '현'의 괴로워하는 모습만 나타날 뿐 '현'의 신음 소리는 나타나지 않는다. 따라서 현의 신음 소리와 교수의 강의 소리라는 소리의 유사성을 활용하여 장면을 전환했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16. [출제의도] 소재의 기능 이해하기

㉔의 뒤에 이어지는 '흠칫 놀라는 현. 총신을 거머쥐고 겨냥하며 슬금슬금 앞으로 든다.'는 지문과 '놈은 온다...... 꼭 온다...... 나를 죽이러 온다......'는 '현'의 대사를 통해 볼 때, '예광탄'이 자신을 구해줄 사람에 대한 기대를 상징적으로 드러낸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① ㉔의 뒤에 이어지는 '아랫말 과수원 판 돈이여. 헛되이 쓰지 말구 꼭 대학에 붙어서 판검사가 되어 허.', '네가 우리 집안에 기둥이 되어 허. 부디 성공을 해라.'라는 고영감의 말에서 확인된다. ② ㉕의 뒤에 이어지는 '천천히 기차가 움직이기 시작한다. 점차 멀어지는 그들. 손을 흔드는 현.'이라는 지문에서 확인된다. ③ ㉖의 뒤에 이어지는 '아, 역시 동굴 속이라 정신을 가다듬어 내다보는 현. 밖에는 추적추적 비가 내리고 있다.'에서 확인된다. ④ ㉗의 앞에 나타나는 '점점 기력이 쇠진하고 의식이 몽롱해지는 현. 상처 찌르는 다리에 가만히 손을 댔다가 눈앞에 가까이 본다.'와 ㉘의 뒤에 이어지는 '가쁜 숨결. 이윽고 헛소리 하는 현.'에서 확인된다.